

出産水準과 人口展望

文 顯 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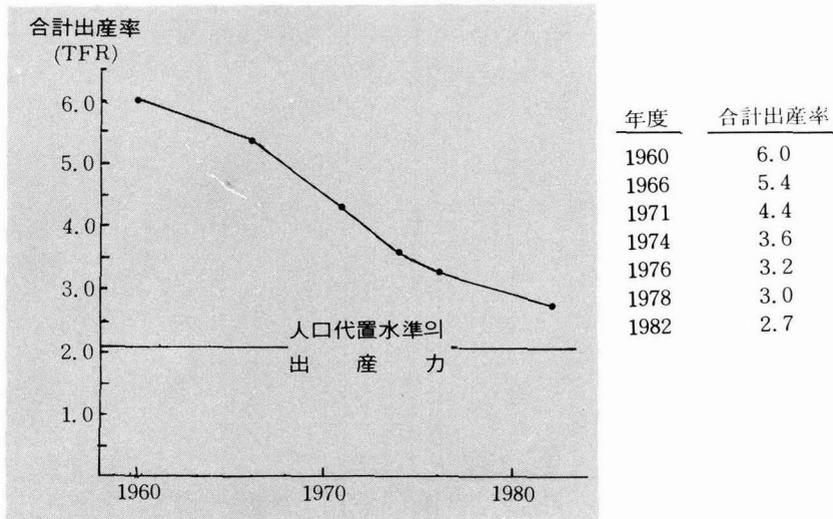
I. 先進國과의 出産率 비교

家族計劃事業이 着手된 이래 우리나라婦人의 出産率 低下 趨勢를 파악하기 위하여 每 2年~3年 間격으로 全國규모의 出産力調查가 實施되어 왔다.

1970年代에는 1971年,¹⁾ 1974年,²⁾ 1976年³⁾ 에 出産力調查가 있었고 가장 最近에는 1982年에 出産力調查⁴⁾ 가 實施되었다.

이들 調査에서 파악된 出産率의 低下趨勢는 合計出産率로 보았을때 아래와 같다.

그림 1. 出産率의 低下趨勢



*韓國人口保健 研究院 首席研究員.

1) 家族計劃研究院, 1971年 全國家族計劃 및 出産力調查 1972.

2) 家族計劃研究院, 1974年 韓國出産力調查 (세계출산력조사사업의 일환) 1976.

3) 家族計劃研究院, 1976年 全國 出産力 및 家族計劃評價調查, 1977.

4)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年 全國 家族保健實態調查 速報資料, 1982.

1960年 이후 우리나라 出産率은 계속 低下 趨勢에 있으며 1982年 調査에서는 合計出産率이 2.7까지 줄어들었다.

合計出産率이 2.1이 되면 이를 人口代置水準의 出産力(Replacement level fertility) 이라 한다. 人口增加率을 0으로 가져올 수 있는 出産水準인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先進國들은 出産率이 人口代置水準의 出産率이다. 西獨, 英國,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은 1950年 前後해서 合計出産率이 2.1 수준에 달했고 1960年을 前後해서는 日本,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등의 合計出産率이 2.1에 가까웠다. 1970年代에 와서는 캐나다, 美國,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濠洲, 뉴질랜드 등 거의 모든 先進國들의 出産率이 人口代置水準으로 되었다.

表 1. 人口代置水準의 出産率이 된 時期

	國	別
1950年前後	西 獨	英國
	오스트리아	스웨덴
1960年前後	日 本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1970年前後	카나다	美國
	벨지움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濠洲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人口가 조밀한 國家이며 人口의 急增은 經濟社會開發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出産率을 人口代置水準까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合計出産率이 2.1 이하로 줄어든다 하여도 당장 人口增加率이 0이 되는 것은 아니다. 人口의 年齡構造로 보아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8년에 合計出産率이 2.1이 되어도 人口는 2050년까지 增加될 趨勢이며 停止人口(Stationary Population)의 규모는 61,310千名이 된다.⁵⁾

先進國의 경우는 長期間 低出産率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國家가 2000년이 되기전에 停止人口가 될 展望이다. 西獨, 英國, 오스트리아 등은 이미 人口增加率이 0이거나 (一)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유럽제국들도 2000년이 되기전에 人口增加가 정지되는 상태에 놓일 것이며, 아세아 지역에서는 日本, 싱가포르, 홍콩 등의 人口增加率이 0이

5) 第5次 5個年 經濟社會開發計劃의 人口部門計劃의 推計資料 1979. 12.

될 것으로 추측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出生率이 급속히 줄어들었지만 1980년의 人口增加率은 1.56%로 推定되고 있으며 1988년까지 人口代置水準의 出生力이 되어도 1990년의 人口增加率은 1.34%가 되고 2000년에 가서야 人口增加率은 1%가 된다.

表 2. 低出生力 國家와의 出生率 比較

國 別		合計出生率	人口增加率(%)
유 럽	서 독	1.5	-0.2
	영 국	1.8	0
	스 웨 덴	1.7	0
	오스트리아	1.7	-0.1
아 세 아	일 본	1.8	0.8
	싱 가 폴	2.1	1.3
	홍 콩	2.3	1.4
	한 국	2.7	1.6

表 3. 우리나라의 將來人口增加 趨勢展望

年 度	總 人 口(천명)	人口增加率(%)
1980	38,123	1.57
1990	44,261	1.34
2000	50,066	1.00
2050	61,310	-0.08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人口增加 趨勢가 高率로 지속되는 理由는 先進國에 비하여 可妊人口(20세~39세 사이의 人口)가 많기 때문이다. 過去 高出産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可妊人口는 앞으로 계속 增加될 趨勢이다.

表 4. 可妊人口의 增加趨勢

年 度	可 妊 人 口 (20세~39세女子人口)
	단위: 천명
1980	5,820
1985	6,795
1990	7,657
1995	8,236
2000	8,083

II. 出産率2.1수준으로 줄어든 것인가?

우리나라의 人口增加 趨勢로 보아 出産率을 줄여야 된다는 當爲性에 대해서는 再論할 여지가 없다. 다만 現在 우리나라의 出産率을 人口代置水準의 出産率로 줄이는데 따르는 몇가지 問題點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出産態度를 나타내는 중요한 指標라고 할 수 있는 理想子女數를 보자. 最近에 실시된 調査에서 우리나라 可妊婦人을 대상으로 그들의 出産態度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주머니께서는 몇명의 자녀를 두는것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質問을 하였는데 調査結果 얻어진 理想子女數의 分布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두는것이 理想的이라고 생각하는 家庭은 극히 드물었다. 대부분의 家庭이 2名 내지 3名の 子女를 出産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2名이 理想的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55%였으며 3名이 理想的이라고 대답한 부인은 31%였다. 특히 農村地域에서는 3名 혹은 그 以上の 子女를 원하고 있는 家庭이 전체의 54%였다.

이와같은 最近에 나타난 子女數에 대한 態度는 過去에 비해 볼때는 매우 少子女指向的인 態度라 하겠으나 앞으로 人口增加를 극소화하고 出産率을 先進國 수준처럼 줄이기 위해서는 세 子女를 희망하는 家庭은 크게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福祉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西獨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出産率을 보이고 있으며 最近 西獨의 合計出産率

表 5. 자녀수에 대한 態度와 男兒選好

		全 國	大 都 市	中 小 都 市	農 村
理想子女數	1명	5	7	5	4
	2명	55	64	57	42
	3명	31	24	29	40
	4명이상	9	5	9	14
	계	100	100	100	100
한子女에 대한 態度	한 자녀가 적당하다	16	22	14	10
	한 자녀는 너무적다	84	78	86	90
	계	100	100	100	100
男兒選好	딸만둘일 경우에는 더 낫겠다	49	35	51	64
	딸만 둘이더라도 그만 낫겠다	51	65	49	36
	계	100	100	100	100

은 1.4수준에 있다. 出産率이 이처럼 줄어들려면 現在 우리가 目標하는 二子女 出産을 넘어서서 一子女만 出産하는 家庭이 많아져야 된다.

우리나라 家庭의 경우 一子女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最近 調査에서는 “요즘 자녀를 1명만 두는 家庭도 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자녀를 하나만 두고있는 家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質問을 하였는데 응답부인의 84%가 一子女는 너무 적다고 대답하였다. 이와같이 一子女가 너무 적다는 態度는 都市-農村, 教育水準, 生活水準, 年齡等에 관계없이 公同적으로 나타났다.

두자녀가 理想的이라고 생각하는 家庭에서도 아들·딸 구별없이 둘이 아니라 두자녀중 적어도 하나는 女이어야 하며, 두자녀가 모두 딸일 경우 아들을 낳기 위하여 出産을 희망하는 家庭이 많다. 調査結果를 보면 딸만 둘일 경우 더 낳겠다고 대답한 부인이 49%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男兒選好는 아직도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男兒選好度는 都市보다는 農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出産力의 豫測과 관련시켜볼 때 現在 20代의 젊은 부인들의 出産態度는 매우 중요시되는 데 調査結果 나타난 20代 부인의 出産態度는 30代에 비하여 훨씬 少子女指向的이다. 20세~24세 부인의 70%는 두자녀가 理想的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한자녀가 理想的이라는 부인도 11%였다. 그러나 20代 부인의 경우에서도 한자녀만 出産하겠다는 부인은 25%에 불과했으며 男兒選好는 여전히 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보다는 실제로 出産되는 자녀수가 적은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理想子女數보다는 실제 出産되는 자녀수가 많아서 두자녀가 理想的이라는 부인도 실제로 두자녀 이상을 出産하게 되는 경우는 많을 것이다.

表 6. 年齡階層別 子女數에 대한 態度 및 男兒選好

		20~24	25~29	30~34	35~39	40~44
理想子女數	1명	11	7	4	3	6
	2명	70	68	54	46	55
	3명	17	22	33	37	31
	4명이상	2	3	9	14	9
	계	100	100	100	100	100
一子女에 대한 태도	1자녀가 적당하다	25	20	15	13	16
	1자녀는 너무적다	75	80	85	87	84
	계	100	100	100	100	100
男兒選好	딸만둘일 경우에는 더 낳겠다	33	40	49	56	49
	딸만 둘이더라도 그만 낳겠다	67	60	51	44	51
	계	100	100	100	100	100

한편 調査를 통하여 앞으로 出産할 것으로 期待하는 期待出産兒數를 알아보았는데 調査當時 자녀 1名을 두고 있는 家庭에서는 “앞으로 자녀를 더 출산할 計劃인가”라는 質問에 대하여 80%가 더 出産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期待出産兒數는 1名을 더 낳겠다는 부인이 87%였고, 2名을 더 낳겠다는 부인은 13%였다. 調査當時 2名의 자녀를 두고있는 家庭에 대하여 앞으로 자녀를 더 낳겠느냐는 質問을 한 결과 79%는 그만 낳겠다고 대답했으며, 21%는 더 낳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볼때 期待出産兒數로 보아서도 우리나라 家庭은 대부분이 2名 내지 3名의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

表 7. 期待되는 出産力

		現存子女數			
		0	1	2	3
追加出産希望	더 낳겠다	97.2	79.6	20.8	10.7
	더 낳지 않겠다	2.8	20.4	79.2	89.3
	계	100.0	100.0	100.0	100.0
追加出産兒數	1명	25.9	86.7	92.3	92.9
	2명	64.0	12.6	7.1	7.1
	3명	8.6	0.6	0.6	-
	4명이상	1.4	0.2	-	-
	계	100.0	100.0	100.0	100.0

그러나 이와같은 출산력에 대한 期待値는 모든 家庭이 出産意思에 따라 100% 피임이 可能할때를 前提한 것이며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하는 경우가 많을 경우는 실제로 出産되는

表 8. 韓國과 合計出産率 2.1 이하인 國家의 年齡別 出産率 比較

국 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TFR
한 국	12	161(100)	245(100)	94	23	3	-	2.7
일 본	4	77(48)	181(74)	73	13	2	-	1.7
호 주	33	123(76)	147(60)	74	24	5		2.0
카 나 다	33	108(67)	128(52)	65	21	4		1.8
이탈리아	48	102(63)	126(51)	80	36	11		2.0
프 랑 스	23	122(76)	125(51)	72	24	7		1.9
미 국	55	112(70)	109(44)	55	19	4		1.8
네덜란드	10	88(55)	137(56)	62	17	4		1.6
영 국	32	110(68)	120(49)	59	19	4		1.7
서 독	18	83(52)	102(42)	54	19	5		1.4
덴 마 크	23	121(75)	125(51)	59	18	3		1.8
스웨 덴	25	107(66)	119(48)	62	21	4		1.7

()내는 한국을 100으로 본 숫자

자녀수는 期待値를 훨씬 넘을 것이다. 調查結果를 보면 出産을 희망하지 않는데도 피임에 실패하여 妊娠된 경우가 45%나 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피임 실천수준은 아직도 낮다고 볼 수 있다.

最近의 出産率趨勢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될 수 있는것은 우리나라 20代 女性의 出産率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의 低出産力 國家에 비하여 20代 出産率이 매우 높다.表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出産率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때 유럽國家들은 50~60 수준이다.

20代 出産率은 結婚率과 出産템포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0代 出産率이 높은 理由는 結婚率보다는 出産템포 때문이다. 出産兒의 母의 年齡, 出生順位를 分析해 보면 年間 出産兒의 81%를 20代 부인이 출산하고 있으며 이들의 出生順位를 보아도 80.5%가 첫째 혹은 둘째 아이였다. 最近 원하는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30代 이후에서 출산하는 율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20代에 첫째와 둘째아이의 출산을 마치고 있다. 따라서 모든 出産이 20代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은 낮아질 수 없다.

表 9. 年間 出産兒 母의 年齡構成

母의 年齡	構 成 比 (%)
15~19	2
20~24	36]
25~29	45]
30~34	14
35~39	3
40~44	-
계	100

表 10. 母의 年齡別 出産兒의 出生順位

母의 年齡	出 生 順 位			計
	1	2	3+	
20~24	64.0	30.4	5.6	100.0
25~29	28.5	41.1	30.4	100.0
30~34	7.4	20.2	72.4	100.0
20~29	80.5		19.5	100.0

以上에서 살펴본 가족계획에 대한 의식·태도와 출산형태로 보아 80年代에 우리나라 出産率을 人口代置水準까지 줄이기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족계획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식구조의 變化가 요구되며 가족계획문제는 개별 가정경제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國家 장래로 보아서도 심각한 人口問題가 따른다는 點을 國民 개개인

이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활동의 展開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人口增加抑制對策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우리나라의 人口問題를 깊이 認識하고 추진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보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1970年代初부터 두자녀운동을 펴왔는데 80年代에는 한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도 강구되어 자녀하나만 출산하는 家庭에 대하여 의료혜택, 교육비, 노후보장 等 國家福祉事業의 혜택을 한자녀 家庭에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制度上의 지원책도 강구해 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만약 現水準의 出生率이 앞으로 長期間 지속될 경우 그 結果 초래될 수 있는 人口의 增加 趨勢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도 출산율의 지속적인 低下가 필요하다는 點을 제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出生率을 2.5수준에서 고정시켜 놓고 長期的인 人口推計를 해본 결과 2000년까지 총인구는 52,664千名으로 증가되며 2030年頃이 되면 72,754千名으로 인구가 증가될 추세이다. 이는 第5次 5個年 計劃에서 1988년까지 合計出生率을 2.1로 줄인다는 假定下에 推計된 人口와 비교해 볼때 長期的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差異를 가져오며 이러한 人口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일의 人口 過密國이 될 것이다.

그림 2. 人口增加趨勢展望

단위 : 천명

